

독일 통일의 주역들(I) : 헬무트 콜 - 독일 통일의 선봉장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위드) 소장

인 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구 동서독 통일의 주역을 거론한다면 누구보다도 통일 당시 구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1989년 11월 10일 폴란드 방문을 중단하고 베를린 중심부 게테히트니스 키르헤에서 개최된 베를린장벽 철거를 기념하는 수만 명의 구 동서독 주민들의 인파 속에 싸여 그들의 환영과 감격을 피부로 직접 체험한 콜 총리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았다”고 참모들에게 토로한 후, 불굴의 투지와 결단력으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전세계 누구도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구 동서독간 통일을 이루어낸 인물이다.

분단 상황 하에서의 구 동서독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이후 정착된 양독간의 화해와 평화 공존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것 같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對구동독 정책도 협력 관계를 근간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양독간의 편지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상호 교

류가 확대되어왔으며, 양독간의 방송 교류도 커다란 방해없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구 동서독의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체제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며, 특히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어 상호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하던 남북한의 시각에서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1989년 가을부터 전개된 독일내 정치 상황은 1972년 「동서독기본합의서」를 근거로 양독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던 구서독의 對구동독 정책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구동독내 정치 상황이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틀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정치인들의 임기 응변과 결단력이었다. 콜 수상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민족은 물론이고 전세계 누구도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통일을 이루어냈다. 그것은 물론 독일의 정치적·경제적 역량에

힘입은 바 크지만, 지도자로서 콜 수상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정치력 그리고 국민의 의지를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기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콜 총리의 역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향한 불굴의 행진

1989년 가을 구동독 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 장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위성 국가들의 개혁·개방의 파고와 함께 더 큰 물결로 구동독 사회를 강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동독인들의 탈출 사태로 구체화되었고, 구동독 내에서는 전통 야당 도시 라이프찌히를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월요데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조직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989년 8월 8일은 구동독인의 탈출 사건이 조직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한 최초의 날이다. 이날 131 명의 구동독 청년들은 동베를린 소재 서독대표부에 진입하여 구서독을 포함한 해외 여행의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탈출 사태는 8월 19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개최된 범유럽 평화 축

제 행사장을 계기로 걸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우선 이 행사를 위해 對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한 틈을 타 600여 명의 구동독 참가자들이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콜 수상은 이 사건에 대응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헝가리로 수차례 특사를 파견해 오스트리아 국경을 향후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헝가리를 두고 구동서독과 동유럽 형제국들이 함께 벌이는 유럽관 외교 전쟁이었다. 구동독의 호네커 정권은 네메츠 헝가리 총리와 호른 외무성 장관에 사활을 걸고 접근하여 對오스트리아 국경에 대한 폐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에 그에 상응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았다.

구서독 콜 총리의 과제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온 기존의 외교 채널에 대해 역사적으로 불가능해보였던 對오스트리아 국경 개방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이 국경 개방의 의미는 구동독인들에게 탈출 경로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구동독 정권의 붕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국경 개방을 둘러싸고 양독의 외교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콜 총리는 구소련에서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며, 이 흐름에 역행하는 세력은 종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꾸준히 확신있게 알려나갔다. 그리고 헝가리의 체제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억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결국 콜 총리의 이러한 불굴의 노력과 헌신적인 자세는 헝가리 정부를 설득하게 되었고, 구서독 정부의 요구에 따라 헝가리는 8월 25일 향후 對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한다는 결정을 선포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불과 두 달만에 2만 4,000여 명의 구동독인이 오스트리아로 탈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구동독에 알려짐에 따라 구동독내 반공산 투쟁은 꺾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나갔다. 급기야 라이프치히 월요데모에는 근 30만 명에 달하는 시위 군중이 모이게 되었으며, 이에 고무된 탈출인들의 수도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동유럽 주재 구서독 대사관에는 구동독인들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체코 프라하 소재 구서독 대사관에는 무려 6,000여 명에 이르는 구동독 탈출자들이 구서독으로의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구서독 정부의 철저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체코 주재 구서독 대사관에 잠입한 구동독 탈출자들을 구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특별 열차를 파견하여

이들을 구서독으로 이주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구서독에 도착한 구동독인들은 구서독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결국 구동독의 사통당 지도부는 구동독인들의 구서독행을 가로막아왔던 베를린장벽에 대한 철거를 결정하였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을 가로막고 수십만 독일 민족의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었던 베를린장벽은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사적인 날, 콜 총리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텔직 박사를 대동하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야 했다. 이미 공식 방문 일정이 결정되었기도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의 對구동독 감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문 기간이 5 일 동안으로 잡힌 이번 공식 방문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마조비키 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레흐 바웬사 폴란드 노조 지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바웬사는 구동독 사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결국 구동독 공산당은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것은 구동독 공산당은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콜 수상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구동독 사태로 마음만은 독일 땅을 떠날 수 없었다.

결국 콜 총리는 폴란드 방문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 날 독일로 돌아왔다. 당시 폴란드와 독일 관계는 독일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對이스라엘 관계와 함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외교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문을 중단하는 결정이야말로 구동독 상황에 있어서 콜 총리가 내린 첫번째 외교적 결단이었다고 평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콜 총리는 통일로 향한 긴 여정을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내딛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구 동서독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시발로 구 동서독 통일을 드러내고 반대하였던 영국의 대처·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폴란드 정치 지도자들을 차례로 설득시킴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독일 문제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결단력과 포용력

콜 총리의 이러한 확실한 결단력은 국민의 뜻을 정확히 간파하고 대외적으로 끊임없는 동지를 만들어나간 데 기인한다. 콜 수상이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혼란 상황 속에서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하고 국민의 의지를 바르게 파악하려 했던 노력이었다. 베를린장벽이 붕

괴한 후 구 동서독 주민들이 최초로 만난 현장이었던 베를린 심장부 케데히트니스교회에서 그는 구서독 주민들뿐 아니라 구동독 국민들도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감지하게 되었고, 콜 수상의 느낌은 구동독내 시위대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Wir sind das Volk(우리가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난 40년간 국민을 탄압하고 자유를 구속해왔던 구동독 공산당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던 시민운동은 급기야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구호로 바뀌어 그동안 아무도 거론치 못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접하고 콜 수상은 “오늘 이 순간 나는 통일 독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 이 순간 독일 국민이 원한다면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국내외에 알리게 되었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전달한 콜 수상은 국내외적으로 이 목적을 위한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갔다. 무엇보다도 통일된 독일이 유럽내 강국으로서 패권주의로 돌아서서는 안된다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최대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이미 이스라엘 샤미르 총리는 “이스라엘은

동서독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었고,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구동독에 대한 개혁·개방 요구가 이토록 급격하게 통일 논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콜 수상을 두둔하고 나온 나라는 미국이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2월 2일로 예정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말타정상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과정 및 구동독의 변화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4일 개최된 나토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독일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발표하였다. 최초의 지원군을 발견한 콜 수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토록 하였다. 콜 수상의 구소련 방문은 다음 해 1990년 2월 10일 이루어졌다. 양 국가 원수의 정상회담은 콜 수상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미국에 이어 구소련도 독일 문제는 독일 민족 스스로의 문제라는 입장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이 대가로 독일은 구소련의 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구소련의 개혁에 독일 정부는 가장 많은 인적·물적 지원을 감행하였고 독일 한 나라가 지원한 규모가 제삼국들의 구소련 지원 총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에트연방과 독일연방 그리고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사이에 통일과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하등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민족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문제이다. 동서독 국민들은 지난 역사의 교훈을 바르게 익히고 독일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이미 보여주었다”는 고르바초프의 이 역사적인 발언을 계기로, 콜 수상은 향후 독일은 유럽내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없애려 노력하였다.

독소정상회담의 결과가 알려지고 독일 통일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지지가 알려지자 이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유럽 내 지도자는 영국의 대처 총리였다. 대처 총리는 본인 스스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발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스스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초프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영국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에 잔류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 독일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통일을 향한 콜 수상의 노력은 이 조건도 충족시키고 말았다.

헝가리의 對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조치가 내려지자 구소련으로부터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결정을 받고 긴급 구호를 요청한 헝가리 네메트 총리에게 “나는 헝가리가 보여준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서슴치 않고 지원을 약속한 콜 총리의 포용력 또한 독일 통일의 장애들을 극복해가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 이외에도 콜 수상에게는 국내의 통일 논의를 하나로 엮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오스카 라폰텐 사민당 총재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과제는 콜 총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다. 구 동서독간 통합 방안을 두고 당시 사민당은 헌법에 해당하는 「서독기본법」 제146조를 고집하고 있었으며, 콜 수상의 기민련은 제23조에 근거한 통일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있었다. 제146조는 양독이 통일 헌법을 마련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독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제23조를 근거로 한 통일은 구동독의 5 개주가 구서독의 연방체제에 편입됨으로 통일을 완성한다는 방안이었다.

오스카 라폰텐 사민당 총재가 제146조에 의한 통일을 고집하게 된 것은 州 총리로 있는 자아브뤼켄 州가 프랑스로부터 독일에 통합되는 과정이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동독체제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부패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경험한 국민은 제146조에 의한 통일 방안을 거부하

고 구동독을 5 개 주로 나누어 연방체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편입을 통한 이러한 통일 방안은 비단 구서독 국민만의 요구는 아니었다. 구동독공산체제를 거부하고 구서독과의 통일을 격렬하게 요구하던 구동독 주민들도 이러한 콜 수상의 통일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최초로 자유 총선거를 통해 총리로 선출된 드메지어는 통일 전야제에서 "이별은 슬픔을 의미하지만 오늘 서독과의 통합은 동독 국민이 원하던 것이었고, 이 순간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즉,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렇듯 구체적인 현실이 기초가 된다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대목인 것이다.

10 개항 프로그램

통일에 대한 콜 수상의 의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구동독에 제시한 10 개항에 달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이 제안은 구동독의 모드로브 총리의 제안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대답이었고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대규모 脫구동독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구동독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프로그램의 과정을 10 년 정도로

보았던 콜 수상은 기대밖의 신속한 진행으로 재임중 구동서독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다. 10 개항에 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통일을 향한 한 지도자의 집념과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첫째, 서독 정부는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의료 지원을 포함한 인권적 차원의 지원을 즉각적으로 취한다. 둘째, 우리는 동독과 추진해왔던 기존의 교류들을 전문야에 걸쳐 전면 확대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전화를 비롯한 통신 분야에 대한 확대도 포함된다. 셋째, 우리는 동독 내에 정치적·경제적 개혁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에 그동안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한다. 넷째, 동독 모드로브 총리의 조약공동체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들을 만들어간다. 다섯째, 동서독간 연합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동독내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대표자를 선출한다. 여섯째·일곱째·여덟째는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과정을 조화시킨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독일 통일에 대한 프랑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미테랑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아홉째, 독일 통일은 군비 축소를 위해 노력한다. 열번째, 독일은 자율적인 결정으로 통일을 이루고 통일된 독일은 유럽 안보에 기여한다.

특히, 다섯째 프로그램의 경우 구동독내 자유 총선거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으로서 10 개항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 조정과 상설 심의 기구인 행정위원회, 공동의회로서의 상임위원회, 공동자문위원회 등 세 가지 기구에 대한 제안은 통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10 개항에 달하는 프로그램이 작성되기까지는 콜 수상의 외교안보 보좌관 텔칙 박사를 비롯한 총리실 장관 자이터스 그리고 對구동독 정책 전문가인 뤼디거 카스 등이 참여하였고, 콜 수상을 비롯한 구서독 정부의 역사적 경험과 외교적 채널들이 총망라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구 동서독 통일 과정이 이와 같은 10 개항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러한 평화적인 통일의 과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즉, 통일에 대한 콜 수상의 역할은 바로 이 10 개항에 달하는 통일 프로그램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발견된다고 요약하게 된다. 27